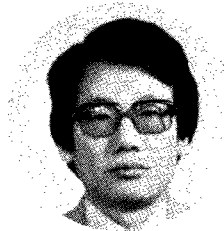


原子들의 합창



權 彝 泳

〈韓國電力技術(株) 事業開發部長〉

團員들은 나를 「團長」이라고 부르고, 나는 내가 「團從」이라고 우긴다. 원래 音樂的 才質이나 組織管理의 能力이 特出하여 맡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團」이라 함은 내가 勤務하는 韓國電力技術(KOPEC)의 合唱團이며 「團員」들이란 나와 같은 會社에 勤務하는 30餘名의 同僚職員들로서, 男女混成으로 엔지니어들도 있고 管理職들도 있으며, 打字員들도 있고 部長, 次長도 있다.

指揮者는 電氣工學 專門家인가 하면 伴奏者는 土木工學 專門家이다. 모두가 매주 月曜日과 火曜日 점심시간이 되면 악보를 끼고 講堂 피아노 주위에 모인다. 40分間 신나게 노래하고, 20分間 신나게 밥먹는다.

「團長」이건, 「團從」이든 간에 내가 이 合唱團 活動을 創團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작정인 것은 勿論, 合唱 자체의 音樂的 즐거움이 그 첫째 理由이지만 이에 못지 않은 理由는 날이 갈 수록 점점 깊어져 가는 信念같은 것으로서, 좀 억지를 부려 表現한다면 「合唱 立社論」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나의 생각은 때로는 「合唱立國論」으로까지 飛躍하기도 한다.

노래라면야 구태어 合唱만 하라는 法이 없고, 獨唱도 있고 齊唱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次元을 따진다면 合唱이 最高가 아닌가 한다. 혼자서 獨也靑靑 목청을 뽑는 獨唱은 個人主義와 같은 것으로서 利己主義나 孤立主義와 相通하기 쉽고, 여러 사람이 때를 지어 한 노래를 한 목소리(音程)로 부르는 齊唱은 따지고 보면 가장 原始的인 形態의 音樂이라는 點에서 次元으로는 제일 下格이며, 자칫 잘못하면 全體主義나 共產主義의 危險마저 있다.

이러한 獨唱이나 齊唱에 比할 때 여러 사람이 한 노래(目的)를 부르되 各自 또는 各 파트가 서로 다른 固有의 목소리(音程)를 모아서 和音을 만드는 合唱이야말로 가장 높은 次元의 音樂이라 하겠다.

「너는 나와는 다르다», 「너와 나와는 다를 權利가 있다», 「너와 나는 各自 다르다는 點에서 모두 同等하다», 「서로의 다름을 尊重하자», 「너와 나와는 서로 다를 必要가 있다», 「너의 다름과 나의 다름을 합해서 뭔가 더 크고, 더 높은 것을 만들어 내자」-이것은 바로 民主主義의 理想이 아닌가? 合唱은 이 民主主義의 理想, 即 人間들 사이에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關係를 우리에게 象徵的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樂聖 베에토편도 그의 最後의 交響曲에서 人間歡喜의 絶頂과 人類最後의 勝利를 合唱으로 表現하지 않았던가?

하나의 機關 또는 하나의 會社는 하나의 훌륭한 合唱團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KOPEC과 같이 여러 다른 分野의 技術들

이 有機的으로 結合되어야 비로서 일이 完成되는 設計엔지니어링(Architect Engineering) 組織이 合唱團과 같아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強調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機械, 電氣, 土木, 建築, 核工學 等 서로 다른 分野의 技術들이 學際的(inter-disciplinary)으로 調和를 이룰 때 原子力發電所와 같은 巨大하면서도 極히 精巧한 作品의 完成이 可能해 지는 것이다. 三重唱, 四重唱이 아닌 十重唱, 二十重唱 以上の 복잡하고 치밀한 合唱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構成員 各自가 有能한 專門家여야 함은 合唱團의 團員 하나 하나가 훌륭한 獨唱者여야 하는 것 만큼이나 重要的인 일이다. 또한 各 技術分野(discipline)의 水準이 고루 훌륭해야 함은 合唱團의 各 파트(Soprano, Alto, Tenor, Bass)가 고루 훌륭해야만 되는 理致와 같다. 그러나 무엇보다 重要的인 것은 한 分野의 일이 成功하기 爲해서는 그 分野 또는 部署를 構成하는 個人들이 서로 一心 同體가 되어 協調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의 프로젝트 또는 會社가 指向하는 目標을 成功裡에 達成하기 爲해서는 서로 關聯된 分野나 部署들 간의 協力이 調和롭게 잘 維持되어야 할 것이다.

原子力發電所의 建設을 위한 모든 努力과 活動을 合唱活動에 비유해 볼 때 事業主(韓電) 設計者(KOPEC), 製作者(韓重等), 施工者(國內 建設業體), 研究機關(KAERI 等) 및 其他 關聯 機關들은 合唱團의 各 파트와 같이 우선 各自의 職分과 役割을 잘 알고(한 사람이 tenor와 bass 役割 사이를 왔다 갔다 말것) 잘 遂行해야 함(soprano 實力이 Alto 實力보다 처지면 困難)과 同時에 또한 重要的인 것은 他 關聯 機關, 業體들과의 有機的인 協力에 萬全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KOPEC 合唱團의 얘기로 돌아가자. 合唱團이 正式으로 發足된 것은 約 3年前이

어서 이제 제법 틀이 잡혀가고 있으며 定期的인 活動으로는 每月 社內 朝會에서 한 두 曲目을 부르는데, 어떤 때는 朝會에 參席한 모든 任職員과 모두 함께 부르기도 한다. 또한 年末의 聖誕, 送年, 社內 파티때에도 출연하여 크리스마스 캐롤을 곁들인 노래 膳物을 하기도 하고 養老院 慰勞 訪問 等 對外 나들이도 한다. 지난번엔 獎勵賞에 머물렀지만 職場새마을 合唱 競演大會같은 行事에도 參與한다.

이들 合唱團員들에게 새해들어 계획이랄까 希望이랄까 하는 것은 古里, 靈光, 蔚珍 等 國內 原子力發電所 建設現場을 巡廻하며 그곳에 派遣되어 일하고 있는 數百의 KOPEC 職員들은 勿論 같이 일하는 國內外 各種業體나 機關의 現場職員들에게 한때나마 慰勞와 즐거움의 時間을 선사해 주는 것이다. 男女混合의 比較的 복잡한 構成에 저마다 所屬部署의 일에 매어 있는 몸들이라 아직도 實現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계속 努力을 하고 있다.

本欄이 하나의 提言을 하는 紙面인 만큼 나도 이에 맞추어 나의 提言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할 것 같다. 하나의 提言은 아주 素朴하고 具體的인 것으로서 우리 原子力産業界의 機關과 業體들間에 相互協力的인 徵表로서 合唱團 活動의 相互交流를 갖고, 1년에 한두번만이라도 聯合合唱團을 構成하여 和音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假稱하여 韓國原子力聯合合唱團 - 原子들의 合唱! 멋있고 웅장할 것이다.

또한 合唱團들 끼리만 아니라, 우리 原子力 産業界의 모든 機關과 業體自身들과 그 構成員들이 하나의 커다란 合唱團과 같이 되어, 서로 돕고 和合하며 調和있는 體系를 이룩하여 다 같이 보람있게 成長함으로써 原子力의 平和的인 利用의 모든 꿈들을 實現시켜 우리의 祖國과 社會 그리고 우리의 後孫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世上을 넘겨 주도록 하자고 敢히 提言하는 바이다.